

저탄소 녹색성장이 희망이다

충청남도지사 | 이완구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녹색성장,’ ‘녹색산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2003년부터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이며,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부과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런 세계적인 위기대응 노력에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은 고탄소 저에너지를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를 줄임으로써, 국가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환경·생태의 건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탈 석유화를 이뤄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린카 상용화 등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탄소제로 도시를 만드는 등 우리 국토를 녹색 정주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고, 대기오염, 해수면 상승, 가뭄과 홍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 기상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녹색생활을 약속해야 한다. 우리 도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된 태안 종합에너지 특구 조성사업을 통해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에 마무리되는 도청 이전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의 모델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우리 도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2%인 6,653만 3,055톤(2006년 기준)이 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당진, 태안, 보령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 앞으로 발전시설의 추가적인 증설이 없을 경우 이 분야의 기술 향상과 에너지연료 전환 등을 통해 2013년까지 약 10%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는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제 우리는 인류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진입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다. 저탄소,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녹색성장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만하는 길이다. 다함께 뜻과 힘을 모을 때이다.